

31년간 노하우로 잔디 생산량 증가·품질 개선 기여

●전남도 '12월 임업인' 김창길 장성동화잔디생산자 영농법인 대표
기계화 통해 품질 ↑ ...맞춤형 생산 가격 경쟁력 강화
김 대표 "기후변화 대응 내구성 강한 품종 개발 필요"



전남도 '12월 임업인'에 선정된 김창길 장성동화잔디생산자 영농법인 대표가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품질 잔디를 관리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12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장성군에서 잔디를 재배·판매하는 김창길(64·사진) 장성동화잔디생산자 영농조합법인 대표를 선정했다. 김창길 대표는 장성 동화면 일원 165ha에 잔디를 심어 31년간 재배하면서 오랜 시간의 재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산량 증가와 생산 기계화를 통해 품질을 개선했다. 소규모 임업인의 잔디를 체계적으로 가공·유통하는 역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재배 임가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잔디 생산으로 판매 가격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잔디는 임산물로 구분된다. 한국 잔디는 난지형 잔디에 속하며 내한성과 내서성으로 생태적 적응력이 뛰어나다. 대부분 4월 생장을 개시해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녹색 기간을 유지하고 10월 초부터 다음해 봄까지 휴면한다. 한국 잔디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잔디로 평가받고 있다. 공원, 정원, 경기장 조경, 골프장 등에 많이 활용되며 최근에는 옥상·벽면·실내 등 인공 지반의 건물 녹화시장에서

도 잔디 소재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고소득 임산물로 자리잡고 있다. 전남지역 잔디 생산량은 2천841ha로 전국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액은

473억원에 이른다. 이 중 장성은 전국 생산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장성군은 기계, 비료, 부산물 처리 등 다양한 잔디 사업 지원을 통해 생산 비용

을 절감하면서 고품질로 생산토록 함으로써 임가 소득 창출에 보탬을 주고 있다. 김창길 대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내구성 강한 품종 개발과 비용 절감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한국 잔디 사업의 메카인 장성에서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한 고품질 잔디를 생산, 잔디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무화과 '두피모발 강화 샴푸' 눈길

전남농기원, 버려진 미성숙 무화과 추출물 소재 개발

전남도농업기술원은 18일 "무화과 재배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소비 시장 확대를 위해 어린 무화과 추출물을 활용한 두피모발 강화용 샴푸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샴푸 개발은 전남농업기술원의 무화과 연구 5개년 계획에 기반해 농촌진흥청의 '지역농업연구기반과 전략작목 육성' 사업 연구비를 지원받아 2022년부터 지속 추진한 연구 성과다. 기존에는 겨울철 전정하기 전 가지에 달린 미성숙 무화과(어린 무화과)



가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연구 결과, 어린 무화과에는 폴리페놀, 비타민 B6 등의 항염증, 항

산화 성분이 풍부해 두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샴푸 개발은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소, 그리고 민감 피부 개선 전문 화장품 업체 라벤엘(대표 김혜영)이 협력해 이뤄졌다. 이소미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연구사는 "무화과는 식품 원료뿐만 아니라 미용 소재로서도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무화과 재배 농가의 소득 증진 뿐만 아니라, 지역 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농협, 지역아동센터 농촌체험 성료

토마토농장 견학·'구움찰떡 만들기' 등 농업 가치 알려

농협중앙회 광주농협본부는 18일 "최근 광산구 용곡동에 위치한 한 체험농장에서 광산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역농업과 농촌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국민과 같이 농촌체험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이현호 광주농협본부장, 김시라 광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광산구청 관계자를 비롯한 광산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농촌체험활동은 도시 어린이들

에게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어린이들은 쌀을 활용한 '구움찰떡 만들기'를 통해 쌀 활용과 소비촉진의 중요성을 경험했고 토마토농장을 견학하며 먹거리의 생산과정과 농촌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현호 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허리보호대 쪼그리' 특허청장 추천 우선 구매 제품 선정

에텐뷰 기술성 입증 ...지자체·공공기관 구입지원 보조사업 늘어

농작업용 편의 장비를 제조·생산하는 (주)에텐뷰의 '허리보호대 쪼그리'가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2024년 우수발명품 우선 구매 추천 사업에 선정됐다. 우수발명품 우선 구매 추천 사업은 조달 사업법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을 적용 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 우수 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모두 통과해 우수발명품에 선정된 '허리보호대 쪼그리'는 농업인들의 근골격계 질환 등 농부병 예방을 위해 고안된 농작업 환경 개선 의자다. 농작업 능력 향상을 위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허리보호대 쪼그리'는 기존 제품에서 엉덩이를 받쳐주는 방식과 허리를 지지하는 보호대를 보강한 제품으로, 무릎에 들어가는 힘을 나눠 주고 허리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면서 골반을 감싼 제품이다. 작업 위치에 따라 적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개선도구인 '쪼그리'는 농업인 등 구매자로부터 착용 상태의 편리성과 안정감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에텐뷰 '쪼그리'는 대한민국 공감 브랜드 대상에서 농업 편의장비 부문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최근에는 특허기술·역량으로 글로벌 농자재 시장 입지 강화를 위해 일본에서 열린 '2024 도쿄 국제 농자재박람회'도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의 K-농자재인 '쪼그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만, 일본 등과의 수출계약을 맺었다. 신시장 개척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에텐뷰의 '허리보호대 쪼그리'는 전국 각 지자체와 공공단체 보조 지원

사업으로 보급,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진국 (주)에텐뷰 대표는 "농업 기술 발달로 농작물의 생산 효율성은 증대됐지만 발작물은 아직도 기계화율이 낮아 쪼그리 일하는 열악한 작업 조건이다"며 "근골격계 질환으로부터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우수발명품 선정에 따라 혁신성과 공공성 등 사회적 필요성까지 인정 받게돼 공공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넓힐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안태호 기자



우선 구매 추천사업에 선정된 우수발명품 농작업용 의자 '허리보호대 쪼그리'.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차만손

차를 만나면 손을 들어 소통해요

QR 코드 스캔하여 차만손 영상 보기

차·만·손이 왜 필요할까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22년도 전체 보행자 사망자(933명) 중 횡단중 교통사고 사망자 54.6%(509명) 차지

도로 횡단 의사 표현

'22. 7. 12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하려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의무

운전자와 소통하는 문화

차량 양보율(광주·전남) 9%
→ 차·만·손 수신호 실천 시 86%

차·만·손 어떻게 실천해요?

보행자 실천방법

- 1 도로를 건너기 전 좌우를 살핀다.
- 2 다가오는 차량을 향해 손을 90도로 받는다.
- 3 운전자와 아이컨택하며 손바닥을 보인다.
- 4 차량이 멈추면 도로를 건넌다.

운전자 실천방법

- 1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보이면 서행한다.
- 2 차·만·손 보행자가 통행의사를 표시하면 일시정지한다.
- 3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지나간다.